

##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장 진 경\*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부교수)

원 소 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 석사과정)

박 소 연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

본 연구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시작으로 다양한 차원의 분류작업을 통해 현재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가족생활교육 관련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등을 검색하여 지난 10년간 개발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자가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28개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별, 주제영역별, 대상별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가족생활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분류 틀을 구성하여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류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문영역별 분류는 가정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기타 학문으로 구성하였고, 대상별 분류는 NCFR의 인간발달단계와 유영주(1991)의 가족발달주기로 분류 틀을 설계하였다. 주제영역의 분류 틀은 NCFR(1997)에서 제시한 가족생활교육의 9가지 주제영역(가족과 사회, 가족 내 역동, 인간발달, 인간의 성, 대인관계, 가족자원관리, 부모교육, 가족법과 정책, 윤리)으로 분류 틀을 설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version 12.0)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및 차이검증( $\chi^2$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야별 개발실태를 보면, 가정학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였다. 그러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다학제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제간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의 다학제적인 학문적 특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학문 분야의 장점이 반영된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주제영역에서는 가족 내 역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가족생활교육에서 가족관계적 측면이 중요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내 역동의 세부영역에서는 예방차원의 기본적인 가족역할에 관련한 프로그램 보다는 문제 해결차원에 가까운 가족스트레스, 가족위기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가족법과 정책 영역으로 이 영역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 된다.

셋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대상별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인간발달단계별로는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가족생활주기별로는 자녀 출산 및 양육기를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가족을 대상으로 함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이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71.5%)이 효과성을 검증하기위한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에 대한 실태를 보면, 검증 작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표본수도 적은 단점이 있었다. 정확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통제집단의 사용과 더불어 종단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효과성 검증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연도별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보급과 사회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며, 동시에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체계적·통합적 보급을 위한 정책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5년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화 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 북을 제작하여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상품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